

{수능/내신 완벽대비} 문법교과서보다 10배 쉬운 문법개념책

떠먹는 국어문법

서울대 국어교육과 페다고지 프로젝트

현유석 · 정다운 · 박용주 · 박인태 · 유한아 · 윤성현 | 지음



Index	8
-------	---

I. 음운

Act 01 음운	12
Act 02 국어의 음운 체계	15
① 발음 기관 ② 모음 ③ 자음	
Act 03 음운 변동	25
① 교체 ② 탈락 ③ 첨가 ④ 축약	
개념 VS 개념	38
종합문제 실전연습	40
단원 총정리	49

II. 단어

Act 04 단어의 형성	52
① 형태소 ② 단어의 구조 ③ 단어 형성법	
Act 05 단어의 분류	59
① 분류의 기준 ② 체언 ③ 관계언 ④ 용언 ⑤ 수식언 ⑥ 독립언	
Act 06 단어의 의미	74
① 의미의 정의 ② 의미의 유형 ③ 어휘 ④ 단어의 의미 관계	
개념 VS 개념	84
종합문제 실전연습	88
단원 총정리	96

III. 문장

Act 07	문장의 성분	100
	① 문장과 문법 단위 ② 문장 성분의 종류	
Act 08	문장의 구조	108
Act 09	문법 요소	115
	① 문장 종결의 유형 ② 높임 표현 ③ 시간 표현 ④ 피동 표현	
	⑤ 사동 표현 ⑥ 부정 표현	
Act 10	문장의 의미	133
	개념 VS 개념	138
	종합문제 실전연습	139
	단원 총정리	146

IV. 어문 규정

Act 11	한글 맞춤법	150
	① 제1장 총칙 ②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③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④ 제5장 띄어쓰기 ⑤ 그 밖의 것	
Act 12	표준어 규정	172
	① 표준어 사정 원칙 ② 표준 발음법	
Act 13	외래어 표기법	186
Act 14	로마자 표기법	192
	개념 VS 개념	196
	종합문제 실전연습	198
	단원 총정리	207

V. 국어사

Act 15	훈민정음	210
	① 훈민정음 이전의 표기 ② 훈민정음의 창제 ③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④ 훈민정음의 운용 ⑤ 훈민정음의 우수성	
Act 16	국어의 변천	218
	① 음운의 변천 ② 단어의 변천 ③ 문장의 변천	
	개념 VS 개념	233
	종합문제 실전연습	234
	단원 총정리	242

Index

ㄱ

가변어	59
가획의 원리	213
각자 병서	215
감탄문	118
감탄사	73
개념적 의미	76
객체 높임	119
객체 높임법	229
거라 불규칙	160
거성	223
거센소리	24
거센소리되기	36, 180
격식체	120
격 조사	64
겹문장	108
경구개음	21
고모음	18
고유 명사	61
고유어	79
공시적 연구	233
과거 시제	125, 230
관계언	60, 63
관형격 조사	64, 232
관형사	71
관형어	103
관형절	110
교체	26, 27
구개음화	31, 155, 182
금기어	80
긴 부정문	131

ㄴ

ㄴ 첨가	36
내포적 의미	76
너라 불규칙	160
능동	129
능력 부정	132

ㄷ

ㄷ 불규칙	159
다의 관계	82
다의어	75
단모음	16

단수 표준어	175
단순·의지 부정	131
단일어	56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113
대명사	62
대치	26
독립 성분	101, 105
독립어	105
독립언	60, 73
동사	66, 68
동음이의 관계	82
동작상	128
된소리	24
된소리되기	30, 153, 183
두음 법칙	155
띄어쓰기	167

ㄹ

ㄹ 탈락	158
ㄹ 불규칙	161
로마자 표기법	192
ㄹ 불규칙	162

ㅁ

마찰음	21
명령문	117
명사	61
명사절	109
모음	16
모음 조화	173, 222
모음 축약	37
목적어	103
문장	100
문장 부사	72
문장 성분	101
미래 시제	126, 231

ㅂ

ㅂ 불규칙	160
반모음	19
반사적 의미	77
반의 관계	81, 133
발음 기관	15
발화시	124
방언	79
방점	223
병서	215

보어	103
보조사	64
보조 용언	70, 167
보조적 연결 어미	87
보통 명사	61
복수 표준어	175
복합어	56
본용언	70
부분-전체 관계	81
부사	71, 72
부사어	104
부사절	110
부속 성분	101, 103
부정 표현	131
불변어	59
비격식체	120
비음	23
비음화	28, 182
비종결 어미	86
비통사적 함성어	58

ㅅ

ㅅ 불규칙	159
사건시	124
사동	130
사이시옷	163, 196
사잇소리 현상	196
사회적 의미	76
상대 높임	120
상대 높임법	228
상성	223
상하 관계	81
상형의 원리	213
서수사	62
서술어	102
서술어의 자릿수	105
서술절	111
선어말 어미	69
설명 의문문	116, 226
성분 부사	72
성상 관형사	71
성상 형용사	67
성조	222
속어	80
수사	62
수사 의문문	117
수식언	60, 71
시제	124
실질 형태소	53

ㅇ

안긴문장	109
안울림소리	22
안은문장	109
양성 모음	173
양수사	62
양순음	21
어간	68, 157
어근	53, 54
어말 어미	69
어미	68, 86, 157
어절	54
어휘	78
여 불규칙	160
연결 어미	87
연구개음	21
연서	215, 216
연어적 의미	77
예사소리	24
완곡어	80
완료상	128
외래어	79
외래어 표기법	186
용언	60, 66
용언의 활용	68
ㄱ 불규칙	161
울림소리	22
원순 모음	17
유음	23
유음화	29
유의 관계	81, 133
ㅡ 탈락	35, 161
은어	80
음성	12
음성 모음	173
음소 문자	212
음운	13
음운 변동	25
음절의 끝소리 규칙	27, 179
의문문	116
의미의 이동	225
의미의 축소	225
의미의 확대	225
의존 명사	196
의존 형태소	53
이동	83
이어진문장	113
Ⅰ 역행 동화	174
이중 모음	19

인용절	112
인칭 대명사	62
입성	223

ㅈ

자동사	66
자립 형태소	53
자음	20
자음군 단순화	33, 179
저모음	18
전문어	80
전설 모음	17
전성 어미	86
접두사	54, 163
접사	53, 86
접속 부사	72
접속 조사	65
정서적 의미	76
조사	64, 157, 196
조음 기관	15
종결 어미	86
중성부용초성	214
중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113
주격 조사	64, 231
주동	130
주변적 의미	75
주성분	101, 102
주어	103
주제적 의미	77
주체 높임	119
주체 높임법	228
준말	164, 165
중모음	18
중심적 의미	75
중의성	134
지시 관형사	72
지시 대명사	62
지시 형용사	67
진행상	128
짧은 부정문	131

ㅊ

차자 표기	210
첨가	26, 36
청유문	117
체언	60, 61, 157
축소	83
축약	26, 36

치조음	21
-----	----

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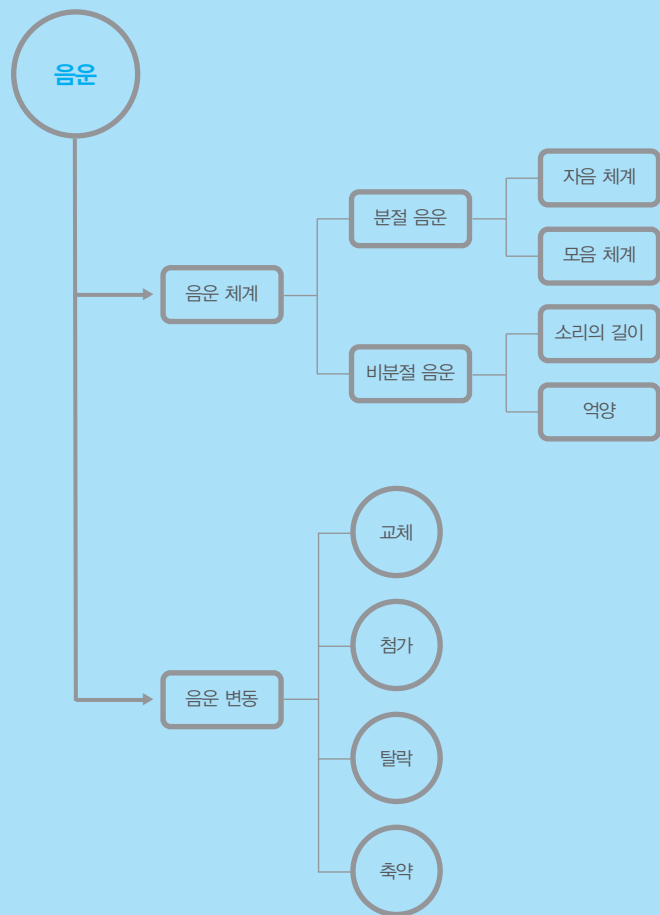
타동사	66
탈락	26, 33
통사적 합성어	58
통시적 연구	233

ㅍ

파생어	56
파열음	23
파찰음	23
판정 의문문	116, 226
팔자가죽옹야	214
평서문	116
평성	223
평순 모음	17
표음 문자	212
표준 발음법	177
표준어 규정	172
품사	59
피동	129
필수적 부사어	106

ㅎ

ㅎ 불규칙	159
ㅎ 탈락	34
한글 맞춤법	151
한자어	79
합성어	56, 163
합성의 원리	214
합용 병서	215
현재 시제	126, 230
형식 형태소	53
형용사	67, 68
형태소	52
홀문장	108
확대	83
후설 모음	17
후음	21
훈민정음	211





음운

Act 01 음운 / Act 02 국어의 음운 체계 / Act 03 음운 변동



Act 01

음운

교과서핵심 ① | 음성 vs 음운

★★★★☆

- 음성 :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소리 - 물리적
- 음운 :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 - 심리적

음성이 뭘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해.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나 울음소리, 혹은 동물 성대모사 같은 것들도 음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야. 그러한 소리들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하지 않아. 그냥 ‘소리’라고만 해. 음성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쓰는 소리만을 가리키는 거야. 네가 친구에게, 부모님께 이야기할 때 내는 그 말소리 말이야.

그렇다면 음성과 음운은 어떻게 다를까? 예를 하나 들어 볼게. 영어 듣기 시험에 ‘락’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자. 토종 한국인이자면 단순히 소리만으로는 그것이 ‘rock’인지 ‘lock’인지 구별이 잘 안 될 거야. 그 이유는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r’ 발음과 ‘l’ 발음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 그것들과 발음이 유사한 ‘ㄹ’ 하나가 있을 뿐이지. 따라서 ‘r’과 ‘l’을 들었을 때, 그 둘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둘 다 ‘ㄹ’처럼 들리는 거야. 이처럼 분명히 다르게 발음되는 두 소리가 어떤 언어에서는 하나의 소리로 인식될 때가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의 두뇌에서 인식하는 말소리가 바로 **음운**이야.

음성은 물리적으로 귀에 들리는 진짜 소리이고, **음운**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소리야. 차이를 좀 알겠니?



왼쪽의 그림을 보며 다시 이야기해 보자. 두 아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지? 왼쪽 아이가 말을 하고 있어. 그 아이가 하고 있는 말, 그 자체는 ‘음성’이야. 그 ‘음성’이 오른쪽 아이에게 전달되어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 인식될 때 ‘음성’은 비로소 ‘음운’이 되는 거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아직 음운의 개념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음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음운 : 단어의 뜻을 구분해 주는 가장 작은 단위

● 음운 : 음소 + 운소

- 음소(= 분절 음운) : 자음, 모음

- 운소(= 비분절 음운) : 장단, 고저, 억양

앞에서 ‘음운은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말소리’라고 했었지? 이는 음성과 음운의 차이를 알려 주기 위한 설명이었어. 문법적 의미에서의 **음운**에 대한 정의는 ‘단어의 뜻을 구분해 주는 가장 작은 단위’야. 자, 아래의 그림을 한번 볼까?



‘물’과 ‘불’, 그리고 ‘풀’이야. ‘물’, ‘불’, ‘풀’은 ‘ㅍ’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 하지만 첫 소리는 ‘ㄹ’, ‘ㅂ’, ‘ㅍ’으로 달라. 이 자음들 때문에 그 의미가 서로 달라지게 된 거지. 그럼 이 ‘ㄹ’, ‘ㅂ’, ‘ㅍ’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을까? 쪼갠다면 더 이상 그건 ‘ㄹ’, ‘ㅂ’, ‘ㅍ’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들이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한국어에서 ‘ㄹ, ㅂ, ㅍ’ 같은 자음은 음운에 속하는 거야. 그렇다면, 과연 자음만 음운인 걸까? 모음은? 아래 그림을 봐 봐.



‘발’, ‘벌’, ‘눈’, ‘불’은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지? 그런데 네 단어의 첫소리와 끝소리는 모두 ‘ㅂ’과 ‘ㄹ’로 같아. 모음만 ‘ㅏ’, ‘ㅑ’, ‘ㅓ’, ‘ㅕ’로 서로 다를 뿐이지. 이렇게 모음에 의해 단어의 뜻이 달라지고 있어. 즉 단어의 뜻을 구분해 주고 있으니까 모음 역시 음운에 해당하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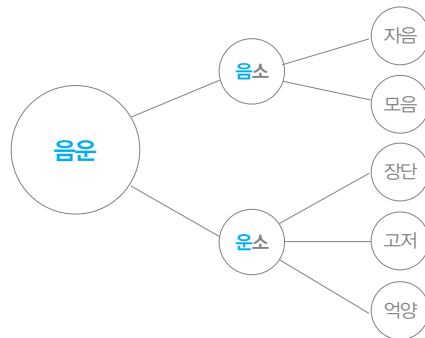
그런데 자음과 모음만 음운인 것은 아니야. 자음과 모음 이외에도 단어의 뜻을 구분해 주는 가장 작은 단위가 또 있어.

● 어제 ㉠눈[눈]에 ㉡눈[눈:]이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

㉠과 ㉡이 다른 단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은 눈이고, ㉡은 눈이지. 이 둘의 뜻을

구분해 주는 것은 바로 ‘[:]’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발음할 때에 길게 소리 내라는 표시야. 그래서 ㉠은 [눈], ㉡은 [누운]처럼 발음해야 하는 거지. 이처럼 ‘짧게 발음하느냐, 길게 발음하느냐의 여부’ 역시 자음, 모음처럼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운에 포함시킬 수 있어.(이런 소리의 길고 짧음을 ‘장단’이라고 해.) 이런 유형의 음운에는 장단 이외에 ‘고저(소리의 높고 낮음)’나 ‘억양’도 있어. 그러나 우리 말에서는 ‘고저’나 ‘억양’이 음운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다른 나라의 언어에서는 고저나 억양이 음운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 중국어의 성조가 말의 고저로 뜻을 구분하는 하나의 예가 되겠지.

지금까지 음운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억양, 고저, 장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 이 중에서 ‘자음’과 ‘모음’은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을 가지는 데 반해, ‘억양, 고저, 장단’은 개별적으로 나눌 수 없고, 말소리에 얹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해서 전자를 ‘음소(분절 음운)’, 후자를 ‘운소(비분절 음운)’라고 불러. 우리가 지금 배운 ‘음운’이라는 단어는 ‘음소’의 ‘음’이라는 글자와 ‘운소’의 ‘운’이라는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말이야.



예제 | 연습문제

‘말’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01 초성을 바꿀 경우 : ()
- 02 중성을 바꿀 경우 : ()
- 03 종성을 바꿀 경우 : ()
- 04 장단을 바꿀 경우 : ()

예제풀이 | 01 달, 발, 살, 알 등 02 물, 밀 등 03 막, 만, 맛 등 04 말:[言], 말[馬]

Ac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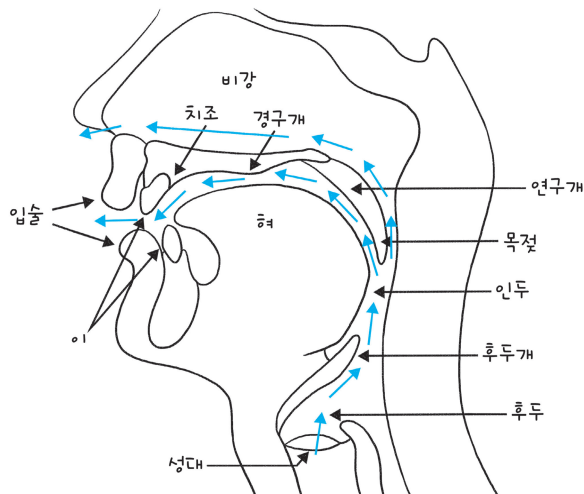
국어의 음운 체계

1 발음 기관

교과서핵심 ③ | 발음 기관

★★★★☆

말소리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모든 기관(= 조음 기관)



말을 할 때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한번 잘 느껴 봐. 대부분의 경우 숨을 들이쉬면서가 아니라 내쉬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공기가 허파로부터 입이나 코를 통해 밖으로 나오면서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때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는 성대를 지나는데, 공기가 지날 때에 성대가 떨리면서 소리가 만들어져. 이후 공기가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목 안을 지나고 입안을 거쳐 입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소리가 되지. 이 중에는 코 안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도 있어.(이를 비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뒤에서 설명해 줄게~)

이렇게 허파에서 나온 공기가 입 밖으로 나오는 동안 말소리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모든 기관을 **발음 기관** 혹은 **조음 기관**이라고 불러. 여기서 조음(調音)이라는 말은 '소리를 만든다' 라고 이해하면 돼.

조음(調音)

調는 '고를 조'이고 훈은 '소리 음'이야! 따라서 조음은 한 자 뜻대로 하면 '소리를 고른 다'가 돼. 소리는 우리가 혀와 입 모양 등으로 구별해 만들게 돼. 따라서 조음은 이런 기관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지.

2 모음

교과서핵심 ④ | 모음

★★★★☆

입안에서 방해받지 않고 나는 소리

대부분의 교과서는 모음보다 자음을 먼저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모음부터 시작할 거야. 왜냐하면 모음을 먼저 공부해야 음운 전체를 이해하기 더 쉽거든!

우리가 불현듯 감탄사를 내뱉는 순간이 있지? 불타는 태양이 먼 바다 너머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날카로운 것에 찔렸을 때, ‘우와’, ‘아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오잖아. 이것 말고도 ‘에이’, ‘야’ 등 많은 감탄사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감탄사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뭘까? 모두 모음을 첫소리로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에 표기되는 초성의 ‘ㅇ’은 비어 있는 초성 자리를 채워 주기 위한 ‘ㅇ’이야. 모음으로 소리가 시작될 때는 초성의 소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초성의 자리를 비워 두면 글자의 형태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ㅇ’을 써 주는 거야.

‘ㅂ’를 한번 발음해 볼래? 순간적으로 두 입술이 맞닿는 것을 느낄 수 있지? [ㅂ]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두 입술을 닫아서 공기의 흐름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야. 이처럼 자음을 발음할 때는 어떻게든 반드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순간이 있어. 반면, ‘아’나 ‘어’를 발음할 때에는 공기의 흐름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흘러나와. 이와 같이 입안에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바로 모음이야. 소리가 나오는 과정으로 자음과 모음을 비교해 봤는데 자음과 모음, 이해가 되니?

자, 이제 위에서 말했던 감탄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어떨 때 감탄사를 내뱉는지 떠올려 봐. 깜짝 놀랐을 때처럼 갑작스런 순간에 감탄사가 튀어나오겠지? 생각할 틈도 없이 툭 튀어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과정이 필요한 자음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야. 소리를 막을 새가 없는 거지.

그럼 이제 모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교과서핵심 ⑤ | 단모음

★★★★☆

발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10개)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 모음이 있어. 먼저 단모음에 대해 알아보자. **단모음**은 ‘단순 모음’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소리 낼 때 입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발음이 단순한 모음이니까 단모음! 그런데 위의 모음들을 발음해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ㅏ’와 ‘ㅑ’는 입 모양이 바뀌는 것 같은데? 맞아. 요즘에는 대부분 ‘ㅏ’와 ‘ㅑ’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 원칙

대로라면 ‘니, 기’를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을 반영해서 지금은 ‘니, 기’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표준 발음법에서 허용하고 있어. 단모음으로 ‘니’를 발음하려면, 입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네’를 발음하면 돼. ‘기’는 입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이’를 발음하면 되고, 그 모양에서 소리를 내는 게 ‘니’와 ‘기’야. ‘니’와 ‘기’를 포함하면 국어의 단모음은 모두 10개야.

교과서핵심 ⑥ 단모음 체계 - 혀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이	혀의 앞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의 모양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ㄱㅣ	ㅡ	ㅍㅓ
중모음		ㅔ	ㅕㅔ	ㅚ	ㅜㅚ
저모음		ㅐ		ㅓ	

① 혀의 앞뒤 : 전설 모음, 후설 모음
 ② 입술의 모양 : 평순 모음, 원순 모음
 ③ 혀의 높이 :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위의 표에서 보듯이 단모음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하자!

단모음 체계 (1) - 혀의 앞뒤	
- 전설 모음 : 혀끝이 앞으로 나오는 단모음	예) ㅣ, ㅕ, ㅔ, ㅕ, ㅕ
- 후설 모음 : 혀끝이 뒤로 움츠리는 단모음	예) ㅡ, ㅓ, ㅚ, ㅜ, ㅓ

먼저 혀의 앞뒤에 따라 단모음을 분류해 보자. 발음할 때 혀가 앞으로 나오면서 발음되는 전설 모음과 상대적으로 혀끝이 뒤로 가면서 발음되는 후설 모음이 있어. 혀끝이 상대적으로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 나뉘는 거지.



전설 모음에는 모두 ‘ㅣ’ 모음이 들어가있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외우기 쉽겠지?

단모음 체계 (2) - 입술의 모양	
- 원순 모음 : 입술을 동글게 오므리는 단모음	예) ㅕ, ㅓ, ㅕ, ㅓ
- 평순 모음 : 입술을 펴는 단모음	예) ㅣ, ㅡ, ㅔ, ㅚ, ㅐ, ㅓ

다음으로 입술의 모양에 따른 분류야. 이걸 위의 두 가지보다 구분하기가 훨씬 쉬워. 눈에 확

실히 보이거든! 이 기준으로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과 입술을 펴는 평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 ‘ㄱ, ㄴ, ㄷ, ㄹ’를 발음하려면 자연스레 입술이 둥그랗게 모아지지? 원순 모음은 입술이 둥그란 ‘원’의 모양이라서 ‘원’순 모음인 거야. 평순 모음은 입술이 ‘평평’하게 펴지기 때문에 ‘평’순 모음인 거고.

단모음 체계 (3) - 혀의 높이

- 고모음 : 혀끝의 위치가 높은 단모음 ㄱ, ㅡ, ㅗ, ㅜ
- 중모음 : 혀끝의 위치가 중간인 단모음 ㅓ, ㅕ, ㅖ, ㅗ, ㅛ
- 저모음 : 혀끝의 위치가 낮은 단모음 ㅓ, ㅕ, ㅖ

마지막으로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단모음을 분류해 볼까? 이때 혀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혀끝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혀끝의 위치가 높은 단모음을 고모음이라고 해. 위치가 중간이면 중모음, 위치가 낮으면 저모음이야.



발음해봤을 때 혀끝의 높이로 구별하기 어렵다면 입이 얼마나 벌어지는지로 구분해봐. 입이 많이 벌어질수록 혀는 아래로 내려가거든. 즉 고모음일수록 입이 작게 벌어지고, 저모음일수록 크게 벌어지지.

혼자 공부할 때는 앞쪽에 정리된 표를 보고 모음을 하나씩 발음해 봐. 혀와 입술, 그리고 입이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하면서 말이야. 예를 들어 ‘ㄱ’는 혀끝이 앞으로 나오면서 입술이 둥글어지고 입이 적게 벌어지는구나, 하는 거지. ^^

예제 | 연습문제

모음 ‘ㅣ’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다음에서 골라 보자.

- 01 혀의 위치에 따라 : (전설 모음 / 후설 모음)
- 02 입술의 모양에 따라 : (원순 모음 / 평순 모음)
- 03 혀의 높이에 따라 : (고모음 / 중모음 / 저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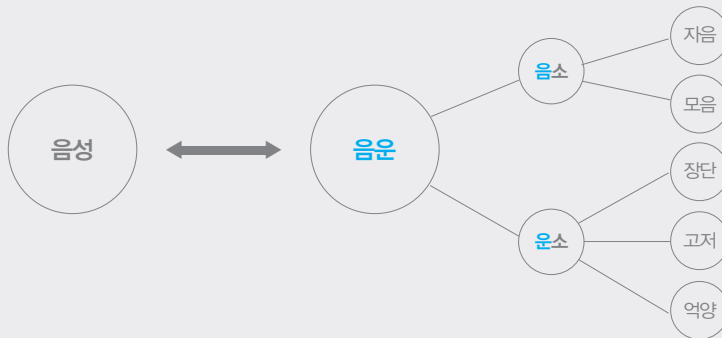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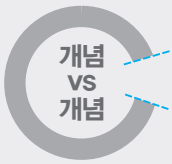
예제풀이 | 01 전설 모음 02 평순 모음 03 고모음

교과서핵심 7 | 이중 모음

★★★★☆

발음의 시작과 끝 사이에 입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음

- ㅏ계 이중 모음 : ㅑ, ㅓ, ㅕ, ㅗ, ㅛ, ㅜ, ㅠ
- ㅓ/ㅕ계 이중 모음 : ㅓ, ㅕ, ㅖ, ㅗ, 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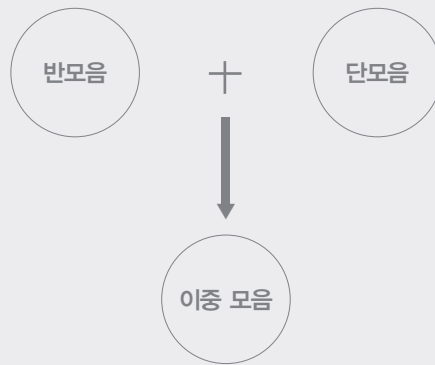


● 음성 vs 음운

앞에서 음성과 음운에 대해 살펴보았어. 음성과 음운을 구별할 수 있겠어? 음성과 음운에 대해 배운 다음에 음소와 운소 등이 나와서 더 헷갈리지? 비슷한 용어인 데다 비슷한 개념인 만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음성은 귀에 들리는 말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음운이란 이러한 말소리, 즉 음성을 머릿속에서 인식했을 때의 개념이야. 앞에서 rock과 lock을 예로 들었었지? rock을 말할 때와 lock을 말할 때 음성은 분명 다르지만 국어에는 r과 l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은 이 둘을 같은 음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반면 영어에는 ‘r’과 ‘l’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둘을 다른 음성이지만 같은 음운으로 받아들일 거야.

● 음운 vs 음소, 운소

위에서 살펴본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분해 주는 가장 작은 단위야. 음운은 음소와 운소로 나눌 수 있지? 음소는 자음과 모음을 뜻하고, 운소는 장단, 고저, 억양을 뜻해. 음소의 ‘음’과 운소의 ‘운’이 합쳐져서 ‘음운’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지? 따라서 음운과 음소, 운소는 비슷한 이름이지만 어떤 것이 큰 개념인지만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거야. 위의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라구~!



● 반모음 + 단모음 = 이중 모음

반모음과 단모음을 분명히 구분해야 해. 종종 반모음 ‘ㅣ, ㅗ, ㅜ’를 단모음 ‘ㅣ, ㅏ, ㅓ’와 동일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 반모음과 단모음이 같다면 굳이 반모음 위에 저런 표시를 왜 하겠어? 반모음과 단모음은 발음부터 다르다고~ 반모음은 머무르지 않고 미끄러지듯 발음된다고 얘기했었지? 소리가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반모음은 혼자 쓰이지 않아. 항상 단모음과 함께 쓰이지.

- 반모음 ‘ㅣ’ +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ㅡ’ → ㅣ계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ㅡ’
- 반모음 ‘ㅛ/ㅜ’ + 단모음 ‘ㅏ, ㅑ, ㅓ, ㅕ’ → ㅛ/ㅜ계 이중 모음 ‘ㅓ, ㅕ, ㅗ, ㅛ’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중 모음이 되었네.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 단모음과 달리 이중 모음은 반모음에서 단모음으로 발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입 모양이 변해. 앞에서 설명했지만 우리말의 이중 모음 중에서 ‘ㅡ’만 하향 이중 모음이고, 나머지는 모두 상향 이중 모음이라는 것도 잊지 마. ‘ㅡ’만 ‘단모음 + 반모음’이고, 나머지는 모두 ‘반모음 + 단모음’이야.

03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수능]

〈보기〉

- ㉠ 옹지 → [올치], 좁히다 → [조피다]
- ㉡ 끊어 → [끄너], 쌓이다 → [싸이다]
- ㉢ 솟도 → [순또], 웃고름 → [온꼬름]
- ㉣ 닳는 → [당느], 부엌문 → [부엌문]
- ㉤ 읽지 → [익찌], 흘거나 → [흘꺼나]

- ① ㉠, ㉡ : ‘ㅎ’ 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 ㉢, ㉣ :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 ㉣ : ‘값다 → [깁따]’ 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 : ‘겉모양 → [건모양]’ 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 ㉤ : ‘앞고 → [안꼬]’ 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04 〈보기〉의 ㉠와 동일한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교육청모의]

〈보기〉

오늘 국어 시간에 두 가지 음운 규칙을 배웠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앞’ 이 [입]으로 소리 나는 것처럼 우리말 받침으로 소리 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규칙은 비음화인데 ‘밤만’ 이 [밤만]이 되는 것처럼 ‘ㄱ, ㄷ, ㅂ’이 ‘ㄴ, ㅁ’ 앞에서 비음으로 소리 나는 것이다. 이제 ㉠ ‘꽃눈’이 [꼰눈]으로 소리 나는 현상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 ① 끝까지[끝까지] ② 부엌도[부엌또] ③ 눈약[눈낙]
- ④ 놓는[논느] ⑤ 뉘뻘[뉘뻘]

- 05 다음은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모의]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 자음 동화

자음 동화에는, 자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와 자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있다. ‘국물[궁물]’은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사례이며, ‘난리[날리]’는 ‘ㄴ’이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의 사례이다.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첨가’란 원래는 없던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맨입’으로는 알려 줄 수 없다.’에서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첫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기 때문이지요. 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ㄹ’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됩니다. 이때에는 ‘뒷문[된문]’의 경우처럼 앞말에 사이시옷(‘ㅅ’)을 넣어서 이를 표시해 줍니다.

<보기>

- ㄱ. 그는 날렵한 ㉠콧날[콘날]이 매우 인상적이다.
 ㄴ. 나는 아끼던 ㉡색연필[생년필]을 잃어버려 속이 상했다.
 ㄷ. 그 사람은 회사의 ㉢막일[망닐]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ㄹ. 아이가 아직 알약을 먹지 못해서 ㉣물약[물락]을 지어 갔다.
 ㄹ. 그녀는 ㉤잇몸[인몸]이 약해져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 ① ㉠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되는 합성어이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② ㉡에서 ‘ㄴ’ 소리가 첨가된 이유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여’로 시작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이군.
 ③ ㉢은 ‘ㄴ’ 소리가 첨가된 후, ‘ㄹ’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④ ㉣은 ‘ㄴ’ 소리가 첨가되어 [물낙]으로 바뀐 후,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⑤ ㉤은 사이시옷을 넣어서 ‘ㄴ’ 소리가 첨가됨을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06 <보기>는 겹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될 때, 겹받침의 자음 중 발음되는 것을 [] 속에 적은 ‘표준 발음’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평가원모의]

㉠ 맑-도록 [ㄱ]	늡-지 [ㄱ]	읽-지 [ㄱ]
㉡ 맑-게 [ㄴ]	늡-고 [ㄴ]	읽-거나 [ㄴ]
㉢ 닻-같이 [ㄱ]	흙-과 [ㄱ]	침-과 [ㄱ]
㉣ 얹-도록 [ㄴ]	넓-지 [ㄴ]	밟-도록 [ㅂ]
㉤ 얹-게 [ㄴ]	넓-고 [ㄴ]	밟-게 [ㅂ]

- ①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ㄹ’의 발음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② ㉢, ㉣를 보니, ‘ㄹ’의 발음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같군.
- ③ ㉤, ㉥를 보니, ‘ㄹ’의 발음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④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ㅅ’의 발음은 ‘ㅅ-’, ‘ㄴ-’의 경우와 ‘ㅃ-’의 경우가 서로 다르군.
- ⑤ ㉨, ㉩를 보니, 동일 용언 어간의 ‘ㅅ’의 발음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07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고른 것은? [수능]

〈모임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 기 + 어 → [기여]
㉡ 살피 + 어 → [살펴]
㉢ 배우 + 어 → [배워]
㉣ 나서 + 어 → [나서]

- ① ㄱ, ㄴ ② ㄱ, ㅅ
③ ㄴ, ㅅ ④ ㄴ, ㅁ
⑤ ㅅ, ㅁ

01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 문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한 문제야. 앞에서 우리가 음절말에서 낼 수 있는 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가지뿐이라는 것을 배웠지? 이 7가지의 음절말 끝소리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지를 묻는 거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의 자음이 바뀌는 것은 '부엌, 옷, 빛, 앞'이 해당해. 저 7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지!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간, 달, 섬, 창'이 되겠고, ㉡으로 넘어가면 자음이 안 바뀌는 경우는 바로 음절말 끝소리로 나는 7가지 소리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지! ㉢의 자음이 어떤 자음으로 바뀌는지를 보면 당연히 저 7가지 소리의 자음으로 바뀔 거고! ㉣의 예들은 저 7가지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음이 바뀌는 경우가 되겠지? '꽃'이나 '밭' 등이 다 해당되겠지. 마지막으로 ㉤은 저 7가지의 소리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되겠고, 따라서 이 문제는 음절말 끝소리로 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게 정답! ㉣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 위에서 설명했듯이 받침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아닌 경우를 찾으면 되겠지? '뽕'과 '밀'은 이 7가지에 해당하지 않아서 '뽕[박], 밀[민]'으로 변하니까 적절하겠지.

왜 답이 아니지?

- ㉠ '부엌'의 경우에는 음절 끝의 자음이 [부억]으로 변하니까 맞지 않아.
- ㉡ 음절 끝의 자음이 예사소리일 때가 아니야. ㅅ이나 ㅈ과 같은 경우는 예사소리인데도 바뀌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지?
- ㉢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가 되겠지. 'ㄱ, ㄹ, ㅂ'만 해당하지는 않아. '밭'만 보더라도 [반]처럼 ㄷ 받침으로 소리가 나잖아.
- ㉤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발음되니까 ㄷ이 없고 ㅅ이 들어간 ㉤은 적절하지 않지. **정답 ㉣**

02 [음운 변동] 이 문제는 음운 변동의 각 종류에 대해서 잘 알고 이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야. 단어의 발음을 보고서 어떠한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거지!

이게 정답! ㉣ '금행열차'를 살펴보자. '금행열차'의 발음은 [그행널차]로 나와 있지! 자,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 그래, 먼저 '금행'이 '그행'으로 바뀌었어. ㄴ과 ㅎ이 합쳐져서 ㄹ이 되었네?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진 거지? 따라서 축약이 일어났어.(혹시나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얘기하는데 ㄴ과 ㅎ 모두 나타나 있지 않잖아?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롭게 다른 하나가 생긴 거니까 축약이야!) 그리고 '열차'가 '널차'가 되었지? 'ㄴ'이 추가되었네? 따라서 첨가가 일어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축약'과 '첨가'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어.

왜 답이 아니지? ㉠ '가랑잎'의 경우에는 [가랑닙]으로 발음이 돼. 차이를 살펴보면 '앞'이 '닙'으로 된 거지. 그럼 일단 'ㄴ'이 새로 추가되었으니까 '첨가'가 있고, 'ㅍ'이 'ㅂ'으로 바뀌었으니까 '교체'가 있어. 따라서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

㉡ '값지다'의 경우에는 [갑찌다]로 발음이 되지. '값'이 '갑'이 되고, '지'가 '찌'가 된 것을 알 수 있어. 먼저 '값'이 '갑'으로 변한 것은 겹받침 'ㅂ'에서 하나가 탈락한 거지? 자음군 단순화야. 그리고 '지'의 'ㅈ'이 '찌'의 'ㅈ'으로 바뀌었으니까 교체가 나타났지. 따라서 ㉡과 ㉢이 일어났어.

㉢ '술하다'의 경우에는 [수타다]로 발음이 되지. 마치 ㅎ이 탈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ㅌ과 ㅎ의 가운데는 ㅎ이 탈락할 환경이 아니야. ㅎ 탈락은 울림소리 사이에서만 일어난다고 했는데 ㅌ은 울림소리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수타다]가 되는 걸까? 이것은 '술하다'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술하다]가 되고, ㄷ과 ㅎ의 축약이 일어나 [수타다]가 되었다고 해야 논리적인 설명이 돼. 따라서 ㉠, ㉣이 일어났다고 해야 맞아.

㉤ '서른여덟'의 경우에는 [서른녀덟]로 발음이 돼. 둘을 비교해 보면 '여덟'이 '녀덟'이 되었네? 자, 우선 '여'가 '녀'가 되었으니까 ㄴ이 첨가되었어. 그리고 '덟'이 '덜'로 바뀌었지? 겹받침이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탈락이지. 따라서 ㉡과 ㉢이 일어난 경우지. **정답 ㉣**

03 [음운 변동]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중요하다고 듣고 배운 음운 변동은 매년 수능마다 등장하는 단골손님이지. 제시된 자료의 발음과 표기를 아울러 보고, 어떤 종류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 찬찬히 뜯어보자.

이게 정답! ③ 순서대로 ㉠과 ㉡의 ‘숯’, ‘웃’, ‘닭’, ‘억’은 모두 ‘술’, ‘울’, ‘탁’, ‘익’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고 있어. 우리말에서 음절 끝소리, 즉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은 모든 자음이 아니라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일곱 개뿐이라는 음절 끝소리 규칙, 기억나지? ‘값다’의 ‘ㅍ’이 ‘ㅂ’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것 역시 음절 끝소리 규칙 때문이야.

왜 답이 아니지? ① ㉠의 ‘울지’에서 ‘울’의 받침 중 마지막 자음인 ‘ㅎ’이 뒤에 오는 첫소리 ‘ㄷ’에 영향을 주어 ‘ㄷ’으로 바뀌게 만들었기에 착각이 맞아. ‘좁히다’에서도 앞에 오는 ‘ㅂ’에 뒤에 오는 ‘ㅎ’이 영향을 주어 ‘ㅍ’으로 바뀌게 되고, 착약을 설명할 때의 ‘A + B → C’, 기억나지? 하지만 ㉠에서는 표기와 달리 발음에서는 ㅎ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려. 이건 착약이 아니라 탈락이지.

② ㉠은 먼저 ‘숯’의 ‘ㅈ’과 ‘웃’의 ‘ㅅ’이 각각 발음에서는 ‘ㄷ’으로 바뀌고 나서, 그 ‘ㄷ’이 다시 그 다음에 오는 첫소리 ‘ㄷ’과 ‘ㄱ’을 된소리로 바꾸어 버리고 있어.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된소리되기가 적용된 거지. ㉡의 ‘읽지’에서는 겹받침 중 ‘ㄹ’이 먼저 탈락하고 ‘ㄱ’이 뒤에 오는 ‘ㄷ’에 영향을 주어(된소리되기) ‘익찌’라고 발음돼. ‘훑거나’는 ‘ㅌ’이 탈락하지만 탈락하면서 동시에 뒤에 오는 ‘ㄱ’에 영향을 주어서(된소리되기) ‘훑꺼나’가 된 거야. ㉠, ㉡은 각각 음절 끝소리 규칙과 탈락 이후에 된소리되기를 적용할 수 있지만(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 아까 봤듯 ㉠은 된소리되기가 아니라 착약이기에 오답이야.

④ ㉡의 음운 변화 과정을 구성하면, ‘닭’은 → (닭) → [닭] → ‘부엌문’ → (부엌문) → [부엌문]이야. 둘 다 먼저 교체 중에서도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ㄴ’이 ‘ㄱ’의 조음 방법을, ‘ㅁ’이 ‘ㄱ’의 조음 방법을 각각 바꾸어 앞 소리인 ‘ㄱ’이 ‘ㅇ’으로 바뀌게 되었어. 비음화는 조음 위치상의 변동이 아니라 조음 방법의 변화야. 비음화의 비음이라는 것이 조음 위치를 통한 구분이 아니라 조음 방법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는 건 표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헷갈렸다면 꼭 확인해 봐!

⑤ ㉡에서 아까 ㉠은 겹받침의 ‘탈락’ 이후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고 했으니, 여기서는 ㉡만 점검하면 되겠다. 헷갈리는 건 사실 이거 하나라고 봐. ‘과연 ㄱ이 ㄱ으로 되는 것은 탈락인가, 아닌가?’ 애들아, 겹받침에서 받침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건 탈락이지만,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예사소리로 바뀌는 건 탈락이 아니고 교체야. 즉, ㉠과 ‘값고 → [안꼬]’에서는 탈락이 일어나고, ㉡에서는 교체가 일어나고 있어. 헷갈리지 말자!

정답 ③

04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이 문제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국어에서 받침으로 소리 나는 것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뿐이라는 거야. 혹시나 글자로 쓸 수 있는 것과 소리 나는 것을 헷갈리지 마. 비음화는 받침인 ‘ㄱ, ㄷ, ㅂ’이 ‘ㄴ, ㄹ’ 앞에서 비음으로 발음되어 ‘ㅇ, ㄴ, ㄹ’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야. 이 두 개를 다시 정리하고 보면 ‘꽃눈’이 예시로 나타나고 있어. 우선 ‘ㅈ’은 받침으로 소리 날 수 없지? 따라서 대표음인 ‘ㄷ’으로 소리가 나게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거지. 그럼 우선 [꼇눈]으로 발음이 되겠지? 그리고 살펴보니깐 ‘ㄴ’ 앞에 ‘ㄷ’이 받침으로 있어. 아, 이번에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상황이네? 그래서 [꼇눈]으로 발음이 되는 거야.

이제 이 원리가 적용되는 다른 예를 찾아야 해. 우선 두 가지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생각해. 그럼 먼저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래 받침이 저 일곱 개가 아닌 경우가 와야 해. 저 일곱 개(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의 하나가 온다면 이 끝소리 규칙이 적용될 수가 없겠지. 그리고 비음화가 적용이 되어야 하니까 다음 말에 ‘ㄴ, ㄹ’이 나와야겠지.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두 개만 생각해서 보면 바로 답이 나와. 앞말이 일곱 개가 아니고, 뒷말이 ‘ㄴ, ㄹ’인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정답! ④ 바로 ④가 그래. 앞말의 받침이 ‘ㅎ’으로 일곱 개에 해당하지 않아.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서 ‘ㄷ’으로 발음이 돼. [꼇눈]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뒷말이 비음인 ‘ㄴ’이지? 그리고 앞말의 받침은 ‘ㄷ’이야. 아, 비음화가 적용되는 경우네? 따라서 결국 [꼇눈]으로 발음하게 되는 거야.

왜 답이 아니지? ① ‘끝까지’는 앞말의 받침이 ‘ㅌ’으로 일곱 개에 해당하지 않아.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

어 [곧까지]로 나타나. 비음화까지 적용이 되려면 뒷말이 비음인 'ㄴ, ㄹ'이 와야겠지만 그렇지 않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해당되어서 답이 아닌 거야.

② '부억도'의 경우도 '억'이 'ㄱ' 받침인 만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따라서 [부억도]가 되지. 그런데 뒷말을 보면 비음인 'ㄴ, ㄹ'이 아니라 'ㄷ'이지? 따라서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아. 참고로 이 경우에는 앞말의 받침이 'ㄱ'이기 때문에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서 [부억도]로 발음이 돼.

③ '눈악'의 경우에는 우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아. '눈'의 받침이 'ㄴ'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이 선택지는 앞말과 뒷말이 'ㄴ'으로 소리가 나서 비음화가 나타난 것으로 헷갈리게 하기 위해 낸 경우야.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지? 참고로 '눈악'의 경우는 [눈낙]으로 발음이 나. 앞말의 받침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생기는 'ㄴ' 첨가에 의해서 ㄴ이 뒷말의 첫 소리에 덧나기 때문이지.

⑤ '덫밥'의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 'ㅍ'으로 받침소리가 날 수는 없으니까 대표음인 'ㅂ'으로 발음이 나와 하는 거지. 그래서 [덫밥]이 돼. 그리고 보면 뒷말이 'ㄴ, ㄹ'이 아니지? 따라서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아. 다만 이 경우에는 '부억도'에서처럼 앞말의 받침이 'ㅂ'이어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 최종적으로 발음은 [덫뽵]으로 나게 돼.

정답 ④

05 [자음 동화 / ㄴ 첨가] 이 문제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함께 다루고 있어. 바로 자음 동화와 'ㄴ' 첨가야.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음 동화가 나와. 그중에서 비음화와 유음화에 대한 설명이 있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 'ㄴ' 첨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 'ㄴ' 첨가라는 것은 ㄴ이 더해져서 소리가 난다는 것인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 하나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야. 모두 'ㅣ'나 'ㅣ'계 이중 모음이어야 하는 거지. '맨입[맨닙]'이 여기에 해당해. 또 다른 경우는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ㄹ로 시작하는 경우야. 예시로 든 것이 '뒤 + 문'이지. 이때에는 발음이 [뒤문]으로 'ㄴ' 첨가가 나타났으니까 그걸 표시해 줘야겠지? 그래서 앞말에 사이시옷을 넣은 거야.

이게 정답! ③ 이 문제는 사실 함정이 깔린 문제야. 내용을 다 이해해도 선택지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어라? 하면서 오답을 찍게 되는 거지. ③이 바로 그래. '막날'은 우선 '막 + 알'로 구성된 파생어야. 앞말이 자음인 'ㄱ'으로 끝났고, 뒷말이 '알'로 'ㅣ'로 시작하고 있지? 따라서 'ㄴ' 첨가가 일어나는 환경이 돼. 그럼 [막날]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비음화가 나타나. 'ㄱ, ㄷ, ㅂ'은 비음인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변하는 거지. 따라서 [막날]은 'ㄱ'이 'ㄴ' 앞에 있으니까 'ㅇ'으로 변하게 돼. 그래서 발음이 [망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선택지를 보면 'ㄴ'의 영향이 아니라 'ㄹ'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어. 'ㄹ'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야. 동화는 붙어 있는 자음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돼.

왜 답이 아니지? ① 'כות'은 당연히 '코 + 날'이 되겠지. 이 경우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하고 있어. 'ㄴ' 첨가가 나타나는 환경인 거지. 이런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넣어 준다고 했지? 따라서 맞는 설명이야.

② '색연필'의 경우에는 '색 + 연필'로 나눌 수가 있어. '색'과 '연필'은 모두 다 의미가 있고, 따로 독립해서 쓰일 수가 있으니까 '색연필'은 합성어가 되지. 그리고 앞말이 자음인 'ㄱ'으로 끝났고, 뒷말이 'ㅍ'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ㄴ' 첨가가 생기는 경우야. [색년필]에서 다시 '색'의 'ㄱ'이 뒤의 'ㄴ'에 의해서 비음화가 되어 [생년필]로 발음되는 거야.

④ '물낙'도 '물 + 낙'으로 나눌 수 있는 합성어야.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ㅍ'이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 [물낙]이 돼. 그런데 ㄹ과 ㄴ이 만나면 ㄴ이 ㄹ에 의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그래서 [물락]으로 발음되는 거야. ㄴ 첨가와 유음화가 차례로 나타난 경우지.

⑤ '잇몸'도 '이 + 몸'으로 합성어야.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ㄷ'이니까 'ㄴ' 첨가가 일어나겠지? 이럴 때에는 사이시옷을 넣어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지.

정답 ③



샘TIP '합성어'와 '파생어'가 뭔지 잘 몰라서 이해가 안된다고? 걱정하지 마. 바로 다음 단원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야. 궁금하면 지금 가서 살짝 보고 오든가^^

06 [자음군 단순화] 사실 '자음군 단순화'는 규칙과 불규칙으로 나뉘 볼 수가 있어. '있다'를 생각해 봐. 앓[안꼬], 앓지[안찌], 앓게[안게] 등 뒤에 무엇이 오더라도 항상 'ㄷ'이 탈락하지? 즉, 탈락의 양상이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 같이 대부분은 규칙적으로 탈락하지만, 안타깝게도(?) 불규칙적인 단어도 있어. 이 문제에 나온 'ㄹ'과 'ㅃ'이 그렇지. 애들은 뒤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 앞의 자음이 탈락할 수도 있고, 뒤의 자음이 탈락할 수도 있어.

이게 정답! ⑤ ㉠와 ㉡를 한번 봐. 'ㅃ'의 발음이 뒤에 어떤 자음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니?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 'ㅃ'의 경우에는 뒤에 어떤 자음이 이어지느냐에 관계없이 모두 [ㄹ]로 발음하는 것이 맞아. 다만, '뱃-'과 '넙-'의 일부 단어에서만 예외로 [ㅂ]으로 발음된다고 설명한 거 기억나지? 그러니 'ㄷ'이나 'ㄷ'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만날 때의 발음과 'ㄱ'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만날 때의 발음이 다르다는 ⑤번의 내용은 틀린 설명이겠지. 그래서 정답은? ⑤번이야.

왜 답이 아니지? ① ㉡의 경우에는 '뱃-, 늑-, 왓-'의 'ㄹ'이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도록',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지'를 만날 경우에 'ㄹ'이 탈락하고 [ㄱ]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반면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게, -고, -거나'를 만나면 ㉠에서 볼 수 있듯이 'ㄱ'이 탈락하고 [ㄹ]로 발음되는 것 보이지? 이를 통해 ①번은 옳다고 할 수 있겠어. (이처럼 'ㄹ'은 평소에는 'ㄹ'이 탈락하지만 뒤에 ㄱ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ㄱ'이 탈락해.)

② ㉠을 보면 '뱃, 늑, 찹'의 'ㄹ'이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ㄱ]으로 발음되어 [닥까지, 흑파, 칩파]로 발음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는 '뱃-, 늑-, 왓-'이 뒤에 'ㄷ'이나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에 [ㄱ]이 발음된다고 보여 주고 있어.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②번은 옳은 설명이라 할 수 있겠지.

③ ㉠,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ㄹ'은 뒤에 오는 말이 같은 'ㄱ'으로 시작하더라도 그것이 어미라면 [ㄹ]로, 조사라면 [ㄱ]으로 발음해야 해. 그러니 뒤에 오는 말이 어미냐 조사냐에 따라 탈락하는 자음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ㄹ'은 원래 항상 'ㄹ'이 탈락하지만,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ㄱ'이 탈락하는 불규칙 변화를 보여 주는구나!"라고.

④ ㉠, ㉡를 보면 '뱃-, 늑-'의 'ㅃ'은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에는 어미가 어떤 자음으로 시작하느냐에 관계없이 [ㄹ]로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한편, '뱃-'의 'ㅃ'은 '뱃-, 늑-'과는 달리 [ㄹ]이 아니라 [ㅂ]으로 발음되지. 이것은 'ㅃ'의 특별한 경우야. 그러니 '뱃-'의 경우에는 다른 'ㅃ'과 달리 [ㅂ]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뒀!

정답 ⑤



Tip 불규칙을 정리하자면 이렇게되는 거야.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지?

'ㄹ': 원래 항상 'ㄹ'이 탈락하지만,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ㄱ'이 탈락해.

'ㅃ': 원래 항상 'ㅂ'이 탈락하지만, '뱃-'은 'ㄹ'이 탈락하고, '넙-'은 예외가 3개(넙둥글다, 넙적하다, 넙죽하다) 있어.

07 [모음 축약] 이 문제는 모음이 발음될 때의 음운 변동, 모음 변동에 대한 문제야. 자음에 대한 공부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할 텐데, 이렇게 허를 찌르는 모음 변동에 대한 문제도 출제되니 약간 당황스럽지? 빠짐없이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ㄴ' 첨가'나 '구개음화'와 같이 모음과 관련 있는 음운 변동도 있지만, 순수하게 모음하고만 관련된 음운 변동은 '— 탈락'(**교과서핵심 ㉠**), '동일 모음 탈락'(**교과서핵심 ㉡**), '모음 축약'(**교과서핵심 ㉢**)이 있었어. 그래서 '동일 모음 탈락'과 관련되는 내용은 <보기>의 <모음의 변동>에서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에 해당하고, '모음 축약'과 관련되는 내용은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는 세 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할까?

이게 정답! ③ 이 문제에서 '㉢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는 바로 '모음 축약'을 어렵게 설명해 놓은 거야. 그럼 어떤 <보기>가 무슨 이유로 모음 축약이 되는지 같이 살펴보자.

㉠은 '살파-'의 '피'와 뒤에 붙은 '-어'가 합쳐져서 발음할 때 [ㅍ]로 줄었어. '피'의 단모음 'ㅣ'와 '-어'가 합쳐져서 'ㅍ'가 되어서 발음이 [ㅍ]가 된 거지. 여기서 앞에 나오는 '피'의 'ㅣ'는 [ㅍ]가 되기 위해 단모음에서 반모음으로 변했

다고 봐도 돼. 이게 바로 모음 축약이구나.

㉞은 '배우-'의 '우'와 뒤에 '-어'가 합쳐져서 [워]가 되었어.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하나의 이중 모음이 된 거지.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중 모음 '꺠'는 단순히 단모음 '우'와 단모음 '어'가 합쳐진 거라고 볼 수는 없어. 이중 모음은 '반모음 + 단모음'의 구성이기 때문이지. 그럼 여기서도 '배우'에서의 '우'가 뒤에 나오는 '-어'와 합쳐질 때, 반모음이 되었고, 이것이 뒤에 나오는 단모음을 만나 이중 모음 [워]가 되었다는 설명이 더 적절하겠지? 이것 역시 ㉝과 같은 모음 축약이 되겠네.

왜 답이 아니지? ㉟은 '기어'가 [기여]로 발음되는 경우야. '가-' + '-어'의 구성이 발음될 때 [-어]가 [-여]로 바뀌었지? 이때에 '기'의 'ㅣ'가 '-어'에 영향을 주어서 '-여'로 발음된다고 보는 건 맞지만, 여기서는 철저하게 하나의 표기는 하나의 발음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이지. 그렇다면 [-어]가 [-여]로 바뀐 것은 어간 '가-'의 단모음 'ㅣ'와 '-어'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었기 때문이겠지? 만약 이 경우를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된 경우로 생각한다면, '가- + -어'는 [기여]가 아닌 [겨]로 발음하는 게 맞다고 해야 해.

㉡은 어간 '나서-' 뒤에 어간의 마지막 소리인 모음 'ㅣ'와 똑같은 소리인 어미 '-어'가 와서 둘 중 하나가 탈락되어 발음이 [나서여]가 아닌 [나서]가 됐기에 동일 모음 탈락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어. **정답 ③**